‘세계속 광주’ 光엑스포로 다지고 U대회로 완결

광주시가 세계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최하는 광(光) 엑스포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임과 동시에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국내에서 도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시의 세계 무대를 향한 ‘도시 마케팅’ 선언인 셈이다.

시가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것은 그동안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가 광산업, 자동차, 가전 산업 등 3대 산업을 축으로 내적인 성장동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이 바탕이다.

■ 하계 유니버시아드

170국 1만여 선수단…3만여명 고용효과
유치 성공땐 ‘광주 브랜드’ 업그레이드

■ 세계 광엑스포

내년 10월 9일부터 28일간 50개국 참가
관람객 200만명 경제효과 6,600억 달해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시가 총력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를 개최할 경우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저력을 과시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의 광주 실사에 이어 같은 달 31일 개최지가 결정되는 하계 U대회는 170개국 1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시는 대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 9천500억원, 부가가치 유발 4천500억원, 취업유발 3만여명 등 직간접적인 유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2003년 대회를 유치한 대구시는 800억원에 달하는 흑자 대회를 치러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3년 대구 U대회 개최효과에 대해 생산유발 8천976억원, 부가가치 4천803억원, 고용창출 1만3천467명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U대회를 치러낼 경우 국비 1조원이 투입돼 국제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데다 도시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음으로써 또 다른 메이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광주시는 주목하고 있다.

시는 U대회를 발판으로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대구는 이미 2003년 대회를 계기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개최지가 됐다. 대회 기간 전세계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게 돼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9 광주 세계 광엑스포(光EXPO)= ‘미래를 여는 빛’을 주제로 내년 10월9일부터 11월5일까지 28일간 상무시민공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린다.

국·시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엑스포는 주제를 구현하는 ‘광엑스포’, 공연· 체험프로그램으로 환상적인 빛의 세계를 보여줄 ‘빛의 축제’, 광기술 및 제품 전시 등으로 구성된 ‘ 국제 광산업 전시회’ 등 3개 분야로 나눠 치러진다.

무엇보다 ‘광엑스포’는 광주의 광산업을 국제 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시는 이 행사를 통해 광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광주를 ‘광산업의 메카’로 각인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산업을 축제와 성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업성과 이벤트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이 행사에 세계 50개국 광산업 관련 기업, 관람객 200만명 이상을 유치해 관광수입 2천200억원, 생산·고용 등 부가가치 6천670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1월 15일 광엑스포 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광주 세계 광엑스포’ 창립총회를 갖는 등 광엑스포 행사준비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시는 광 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세계 각국의 광산업 관련업체와 기업, 관람객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2009 광주 세계 광엑스포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계U대회’ 개최 기원 도보순례 대장정 결단식(왼쪽), 오른쪽은 2007 광산업 박람회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